



그랜드 오페라단과 광주 상무지구 ASA 드림커피숍은 매주 목요일 커피숍에서 '재즈&클래식 오픈 스페이스' 공연을 갖는다. 사진은 첫 공연이었던 지난 2일 박수용재즈오케스트라 연주 모습.

커피향과 함께 재즈·클래식 공연 즐긴다

상무지구 ASA드림커피 매주 목요일 매일 저녁 재즈 영상 감상회도

‘목요일의 재즈&클래식 성찬.’ 지난 봄 광주 상무지구 커피숍 ASA드림커피 3층에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이 열렸다. 소프라노 이진진씨와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 등 3명의 클래식 전공자와 한 명의 재즈음악가로 구성된 ‘클래식 앙상블’이 며칠 후 광주문화예술회관 열린 본 공연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 형식으로 마련한 무대였다. 공연은 흥미로웠고, 커피숍에 모인 이들도 편안한 기분으로 차 한잔 하며 공연을 지켜봤다.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는 2층과 독립된 3층 공간은 전문 공연장은 아니지만 공연을 관람하기에 딱 관람은 장소였다. 당시 ASA드림커피에서는 대표가 재즈를 좋아해 부정기적으로 재즈 공연 등이 열리고 있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그랜드오페라단이 ASA드림커피와 함께 음악회 ‘재즈&클래식 오픈 스페이스’를 시작했다. 그랜드오페라단이 기획과 홍보를, ASA드림커피가 기부금 후원과 장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7년 창단한 그랜드 오페라단은 대형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대신, 오페라 갈라 콘서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등 좀 더 친숙

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함께 해온 단체다. 이번 음악회의 산파 역할을 한 이는 그랜드오페라단 송태왕 단장이다. 박수용재즈오케스트라와 이곳에서 공연을 한 적 있던 송단장은 지난 3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때는 오페라단원들과 함께 로맨틱 콘서트를 열었다.

자체 공연을 기획하는 데 한계를 느낀 ASA대표에게서 전문적인 기획을 의뢰받은 그는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기 위해 재즈와 함께 클래식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송 단장은 지역과 대전, 서울 등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9월까지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역에서 매주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도, 미리 3개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경우도 혼치 않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지난 2일 박수용재즈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지난 9일에는 남성 성악 앙상블 ‘빅맨 싱어즈’가 무대를 장식했다.

16일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최혜진의 무대가 마련되며 23일에는 재즈 뮤지션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민경훈과 친구들이 공연한다. 7월 30일과 8월 6일은 여름 휴가구 공연을 선 후 8월에는 ▲박종화의 재즈 앙상블 (13일) ▲집 나간 소프라노, 잠깐 바이올린, 새집메기 피아노 (14일) ▲색소포니스트 이경구 콰텟(27일) 등이 이어진다. 9월에는 ‘슈퍼스타 K6’에 출연해 심사위원

들의 극찬을 받은 재즈보컬리스트 김현미(3일)가 공연하며 ▲그랜드 오페라단의 사랑의 세레나데(10일), 송태왕 단장과 박수용 호신대 교수가 함께 꾸미는 토크 콘서트-두 남자의 음악여행(17일), ▲첼리스트 이후성 공연(24일) 등이 대거중이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매일 오후 7~10시까지 3층에서 유명 재즈 연주자들의 공연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기도 제공하고 있다.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한 현재까지 일단 합격적이다. 정원이 60~70명 정도인 공연장을 찾은 이는 50여명이 넘었다. 또 회원가입(1년, 6개월, 3개월)을 하고 가는 이들도 많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많이 와주셨어요. 특히 직접 공연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그것도 매주 다양한 재즈·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게 행복하고들 하십니다.”

송 단장은 “열린 마음, 열린 음악, 열린 공간을 모토로 시작하는 재즈&클래식 오픈 스페이스가 재즈, 클래식 구분 없이 다양한 음악을 나누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장료 1만원을 내면 커피가 제공된다. 문의 062-223-4338, 010-2325-8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놀이 도시 in 광주’ 국비공모사업 선정

광주문화재단의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문화활동가들이 공동기획한 ‘어린이 놀이 도시 in 광주’ 프로그램이 문화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의 국비공모사업 창의예술캠프 ‘우라부락’에 선정됐다.

‘우라부락’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가와 놀다’를 핵심 콘셉트로 11~13세 아이들을 모집해 2박3일간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노는 행사다.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는 어린이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도시를 꾸민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2박3일간 놀이와 문화예술로 노는 창의예술캠프가 차려진다. 기간은 8월20~22일. 초등학교 4~6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어린이들은 캠프기간 동안 지낼 자신의 집을 종이로 짓고 일과 놀이를 하며 어린이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문의 062-670-576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연 저력 보여준 14색 페스티벌

13개팀 11개 작품 선보여 단순 나열 공연 아쉬움도

광주문화재단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제2회 14색 페스티벌’이 11일 극단 청춘의 ‘국악 뮤지컬 굿문(門)’을 끝으로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막을 내렸다.

13개팀이 선보인 11개 작품은 연극, 클래식,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광주 공연예술계의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단체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단순 나열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연극 부문에서는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일부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작품 몰입을 방해하는 등 역량이 떨어지는 작품도 눈에 띄어 아쉬웠다. 이번 페스티벌이 시민들에게 광주 지역 예술단체들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기획인 만큼 단체들이 좀 더 공들인 작품을 내놓아야 할 듯하다.

6일 무대에 오른 K.에듀댄스컴퍼니의 ‘우리들의 푸르른 날을 향하여’는 현대무용 ‘기다림으로’, 타악 공연 ‘두 손 모아서’, 강강술래를 선보인 ‘모두의 마음으로’ 등 3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단체의 특성을 살려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모두의 마음으로’처럼 차리리 강점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9일 무대를 장식한 ‘아트컴퍼니 원’의 연극 ‘우리집이야’는 귀신과 사람, 전통과 현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비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성주신, 측신, 조양신 등 집안 곳곳에 신이 살고 있다는 가신 문화를 소재로 고아로 자란 인물을 통해 5·18의 아픔을 형상화했다.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입고 있는 ‘유머 코드’는 되레 웃음을 막는 흡이었다.

이어 10일 무대를 장식한 사)전통문화연구회 ‘열쭉’의 ‘인수화풍’은 “디지털시대에도 사물놀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같았다. 사람, 물, 불, 바람을 사물과 두드림으로 표현한 무대는 흥미진진했고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미세하게 떨리며 빗소리를 만들어 내는 연주자의 손길은 “왜 열쭉여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울림이었다. 단연, ‘끝판왕’은 태평소였다. 깊은 울림 뒤 정적을 불러오는 태평소 가락은 일사한 여운을 함께 안겨줬다. 공연의 구성도 훌륭해, 북에서 튀기는 물방울에 어린 관객은 환호했고, 북에 불을 붙여 두드릴 때는 ‘불에도 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공연이었던 극단 청춘의 ‘국악 뮤지컬 굿문(門)’은 100명을 천도시키면 무당의 없을 벗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99번째 천도제를 준비하는 무녀와 세아들을 잃은 할매 등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국악과 양악 반주가 어우러진 흥겨운 음악과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준 점, 할매 역을 맡은 채희영씨의 연기가 인상 깊었다.

지역 극단으로 국악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점은 의미있었고 고상한 흔적도 보였지만 완성도 면에서 정작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장르였는지 고민해 봐야 할 듯한 작품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연장상주단체들이 기획한 ‘14색 페스티벌’에서 ‘인수화풍’을 선보인 전통문화연구회 ‘열쭉’

아시아 문화개발원 개관 전시 참가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이 개관 전시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할 국내·외 전문가를 모집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다양한 분야의 창·제작자들이 실험적이며 새로운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제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Creators in Lab) 참가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시각예술 ▲뉴미디어 ▲사운드 ▲디자인 ▲공예 ▲건축 ▲공학이며 국내·외 총 10팀을 선발한다. /윤영기자 penfoot@

선정된 전문가들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공동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숙소 및 창작활동비, 프로젝트 경비(최대 2000만원)를 지원받는다. 원서 마감은 8월 9일이다. 개발원은 오는 15일 문화전당 창조원에서, 17일에는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결과물들은 11월 개관전시인 ‘상상원 想像園, 아시아(Imaginary Circle, Asia)’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410-3411. /윤영기자 penfoot@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